정성 다하니 전설이 되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㉟ '취사병 전설이 되다'(2026)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관심사병 강성재가 퀘스트 상태창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해결하고, 그 보상으로 스킬과 레시피와 아이템을 얻어가며 소초의 에이스 취사병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 건강한 연예인의 상징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전국의 부대를 방문해 위문 공연을 하는 방송으로, 당시 표현으로는 '군부대 위문 프로'였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8년 정도 진행된 이 방송의 주요 내용은 휴가증을 걸고 벌이는 병사들의 장기자랑이었다. 부대장이 포함된 심사위원들이 여러 도전자 중 한 명을 뽑아 휴가를 보내주니, 매회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우정의 무대'에서 가장 유명했고 기억에 남는 코너는 '그리운 어머니'다. 아들을 면회 온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자기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병사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다.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병사 중에 진짜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를 업고 고향으로 휴가를 간다. 특히 이 코너가 모두의 가슴을 찡하게 만든 것은 코너의 시그널 음악인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놓고"로 시작하는 노래다. 세상에 거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씩씩하고 패기 넘치는 20대 젊은 병사들도 '엄마'라는 단어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도 같이 뭉클해졌다. '우정의 무대' 이후로도 군대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여럿 있었지만 '우정의 무대'만큼의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은 보지 못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만나기 전에는.

외진 바닷가에 있는 해안부대 강림소초에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 강성재(배우 박지훈)는 신병훈련소에서 최우수 훈련병으로 표창까지 받은 인재다. 덕분에 행보관 박재영(배우 윤경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지만, 심리검사 결과는 'S등급'.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입대해서인지 우울증세와 게임 중독성 모두 '매우 높음'이 나오고 말았다. 'A등급보다 우수해서 S등급'이 아니라 최우수 훈련병에서 졸지에 '최우선 관심병사'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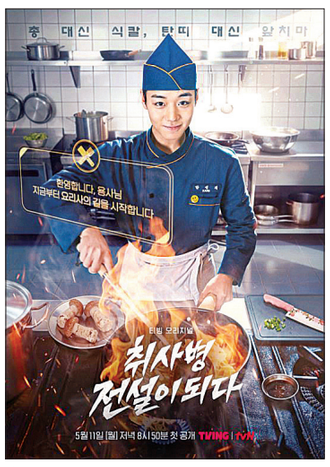
관심병사의 표식인 '스마일 배지'를 받은 강성재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떠밀리듯 취사병 보직을 받게 되고, 강림소초의 병영식당에는 극악의 요리 실력으로 악명 높은 근육질 말년병장 윤동현(배우 이홍내)이 버티고 있다.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했을 뿐,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모르는 강성재의 앞날이 한없이 암울해진 그 순간, 눈앞에 난데없이 게임 퀘스트 상태창이 뜬다. "용사여, 이 세계는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설의 요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을 따라 강성재는 취사병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관심사병 강성재가 퀘스트 상태창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해결하고, 그 보상으로 스킬과 레시피와 아이템을 얻어가며 소초의 에이스 취사병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다. 그러면서도 강성재의 요리를 계기로 중대장 황석호(배우 이상인)와 소초장 조예린(배우 한동희)이 대대장 백춘익(배우 정웅인)의 비리를 밝혀내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을 에둘러 비판하는 드라마기도 하다.

게임 캐릭터가 단계마다 미션을 완수하며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문학에서 말하는 영웅담 구조와 유사하다. 영웅담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인물이 출생하자마자 시련을 겪다가 누군가에게 구출돼 그를 부모처럼 여기며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차례차례 해결하고 마침내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기본 구조를 갖는다. 영웅담의 핵심은 주인공이 역경을 해결하고 최종적 본래의 고귀한 지위를 되찾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구조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하는 〈화엄경〉의 선재 동자 이야기와 일치한다. 선재 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구하는 여정에 나선 뒤, 성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스승으로 삼아 법문을 듣는다. 마치 〈화엄경〉이라는 게임에서 53스테이지마다 미션을 완수하는 것처럼.

관심병사 강성재, 떠밀리듯 취사병 돼
요리사 길 튜토리얼 따라 최고로 성장
밥의 가치와 마음 살핌 중요성 드러내
한 끼에 담은 정성, 사람 마음 움직여



'취사병 전설이 되다'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선재 동자의 구법 역시 핵심은 구법의 최종 단계에서 만나는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은 선재 동자가 구법을 떠나도록 한 최초의 선지식인데, 마지막에 다시 최초의 선지식을 만난다는 설정은 선재 동자가 찾던 최종 목표가 사실은 본래 선재 동자의 지위였다는 뜻이다. 이것을 흔히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고 한다.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는 마지막 회에 등장하는 급식 요리대회 내용에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 강림소초의 폐쇄를 앞두고, '대회에서 우승하여 초소 폐쇄를 막으라'는 퀘스트를 받은 강성재는 윤동현과 김관철(배우 강하경)과 함께 굳건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간부식당 팀과 공동 1위를 한다. 그런데 우승을 했으니 퀘스트를 무사히 마쳤다고 안심하는 순간, '미션에 실패했다'는 소리와 함께 모든 스킬과 레시피가 사라지고 '요리사의 길'이 종료된다.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한 번 더 승부를 겨뤄야 하는 상황,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프로 셰프 출신의 간부식당 취사병 이호영(배우 오승백)과 1:1 대결을 해야 하는 강성재는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요리를 해야 하는 위기를 맞는다. 절망감에 잠시 흔들리던 강성재는 그동안의 경험과 매일 오감으로 느낀 것에 의지하기로 한다. "양념의 정량이 얼마인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혀로 느끼는 맛이니까. 상태창이 사라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온전히 나 자신뿐이다."

이때 강성재는 쌀 씻는 법을 알려준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 내고는 중요한 각성을 한다. "그래, 어쩌면 상태창이 알려주기 전부터 아빠가 다 알려줬을지도 모른다." 취사병이 된 후로 의지해 온 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정작 성재는 자신을 향한 확신을 되찾고 요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이미 배웠음을 깨닫는다. 성재가 도달한 최종 목표가 사실은 원래부터 본인이 지니고 있던 자리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한 강성재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버지에게 배운 요리의 정수가 먹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있음을 깨닫는다. 화려한 프랑스식 요리에 맞서 강성재가 내놓은 음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이었다. 음식을 맛본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드라마는 강성재의 입을 빌려, 병사들이 군 생활 중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집밥이고 집밥은 곧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면서, 밥 한 그릇의 온기에 그리움을 채워주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밥 먹는 일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입대 초기만 해도 무기력하고 위축됐던 강성재는 자신의 밥을 먹고 행복해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밥의 의미를 확인한다. 관심병사인 강성재에게 절대로 칼을 주지 말라던 행보관은 음식 맛에 감동해서 직접 장미칼을 전해주는데, 행보관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짬밥 허투루 먹은 것 아니다"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다. 정성 들여 만든 한 끼의 밥이 장병들이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낼 힘이 되고, 그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강성재에게 제시되는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의 핵심은 경험치다. 게임의 형식을 통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레벨업' 곧 성장으로 이끈다. 처음에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행보관이나 선임 장병들과의 관계도 요리를 매개로 그들과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선한 인연으로 풀어낸다. 그리고 마침내 강림소초의 모든 구성원들이 '밥심'으로 똘똘 뭉친 동료가 된다.

인생도 결국은 경험치를 쌓는 일이다. '요리사의 길 튜토리얼'에 의지해 '전설의 취사병'으로 성장하는 강성재를 보면서 '인생의 길 튜토리얼'이라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잠시 망상을 부리다가 문득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처님 경전이라는 훌륭한 지침서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길잡이 삼아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된다. 굽이굽이 인생길에서 흔들릴 때는, '전설의 불자'가 되는 모든 것을 이미 부처님께 배웠음을 기억하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